

용인 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이 주는 교훈



예재길 박사

(엘랑코 코리아 연구개발부장)

1. 머리말

우리 나라 양돈산업은 그 동안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지혜로운 노력으로 안정적 성장을 하고있다. 돼지의 질병 분야에서는 1979년도에 유행했던 돼지 전염성 위장염(TGE)으로 많은 자돈이 폐사되었다. 그 당시 돼지 전염성 위장염의 백신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백신 가격 또한 매우 비싸 백신접종도 원활히 할 수 없었다. 1982~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관급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 후 1987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돼지 오제스키병은 양돈 산업을 위기로 몰아 넣었다. 당시 9,000두 규모의 대규모 양돈장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여 매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돼지 질병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동안 돼지콜레라는 산발적으로 지속적인 발생을 계속하였으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전국의 양돈 생산자, 생산자 단체 그리고 유관 기관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돼지콜레라 박멸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그 결과 1990년부터 거의 발생이 없었다. 그 후 전국적으로 1~2개 양돈장에서만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역학조사와 대비책을 수립하였던 바 성공적으로 돼지콜레라를 박멸시키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돼지콜레라의 공식적인 발생이 없어 돼지콜레라의 박멸이 완성 단계로 판단하고 앞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즉 2000년 10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방침 하에 1999년 4월부터 3개 현(縣)에서 시범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대일본 돈육 수출용 돼지고기 위생 조건을 변경하려는 방침을 1999년 3월 15일 우리 나라 정부 당국에 통보하게 된 것이다.

2.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

제주도에서는 최근 10여년 동안 돼지콜레라의 공식적인 발생 보고가 없음을 토대로 1998년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박멸의 성공을 예견하기도 하였으나 1998년 10월 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병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만성적으로 잔존해 있는 강독 돼지콜레라 virus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충청지역에서 1998년 11월과 12월에 대규모 양돈장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는 양돈장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돼지콜레라 강독 virus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불안전 면역상태인 돼지의 이동으로 인해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박멸 정책 수립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3. 용인 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

지난 달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에 관한 자세한 상황은 이미 보도 되었다(월간양돈 4월호 참조). 그러나 발생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자. 1999년 2월 18일 최초로 110일령의 육성돈에서 고열, 변비, 호흡 곤란, 호흡기 증상 등의 임상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폐사돈이 발생하였다. 축주는 그 날 바로 신고하였고 축산위생연구소 경기

남부팀에 의해서 부검을 실시하였으며 가검물을 채취하여 본소 병리 진단팀은 2월 23일 형광항체 검사법으로 돼지콜레라 강독 virus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2월 26일 최종적으로 돼지콜레라임을 확정 진단하였다. 2월 25일에는 자돈을 분양한 양돈장에 대하여 혈액 및 환돈을 수거하여 정밀확인검사를 실시하던 바 2월 26일자로 돼지콜레라임을 진단하였다. 2월 27일 발생 양돈장의 돼지콜레라 발생돈군 및

감염 이환돈이 사육되고 있는 1개 돈사내 돼지 전부를 살처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매몰하였다. 이번에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발생 양돈장의 총 사육두수는 3,413두, 발병 추정두수 1,497두, 폐사 두수 354두, 살처분 두수 1,656두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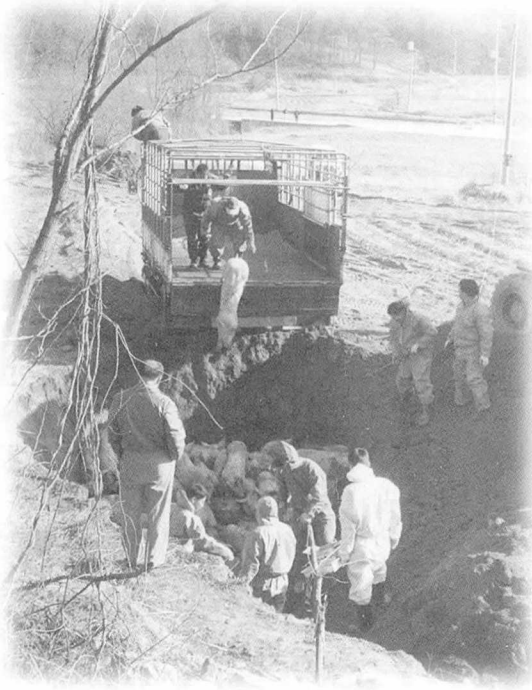
역학조사 결과 발생돈은 외부에서 구입된 돼지 및 비육돈 위탁 농가에서 발생하였으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일지가 확실히 작성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양돈장 관리자의 잦은 교체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4. 용인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이 주는 교훈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역학적 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강독 돼지콜레라 virus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소홀

히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는 이동 직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돼지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모든 돼지가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가 적절히 보유하고 있어야 돼지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선진국에서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드물어지거나 아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지난 2월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매몰시키고 있다.

되면 검색, 살처분으로 완전 박멸할 수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돼지사육 형태에서는 돼지콜레라에 노출될 수 있는 일령이 있다는 것이다. 이유 후 돼지의 이동이 심하고 자돈만 전문으로 여러 양돈장에서 구입하여 비육만 하는 양돈장도 많이 있다. 또한 위탁농장 및 분양농장 형태의 사육 방식이 있어 일반적으로 질병의 차단효과도 있지만 돼지콜레라의 예방접종이 부실할 경우 돼지콜레라의 발생위험도 있다. 이러한 사육 형태일수록 철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소독, 차단 방역 등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매몰시키기 위해 상차시키고 있는 장면

셋째 사육중인 돼지는 정밀한 관찰과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 직후에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번 용인 지역이나 지난번 충청도 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이동 직후에 발생되었다.

넷째 신고를 조기에 해야되며 의심되는 환돈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할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국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양돈산업 전체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지 못하였던 원인도 방역 당국에 철저히 신고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우리나라 전역에 돼지콜레라 강독 virus의 분포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잠복 감염 상황을 역학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병성 감정용으로 진단의뢰된 가검물만 검사하지 말고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가 없는 돈군,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가 매우 높은 돈군,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가 불규칙하게 형성된 돈군 등에 적극적으로 돼지콜레라 강독 virus의 존재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많은 수의 돼지콜레라 발생을 진단하였지만 병성감정용으로 진단의뢰 되었거나 신고된 경우에 한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돈군의 항체조사 후 적극적으로 가검물을 채취해서 돼지콜레라 감염을 밝혀내어야 성공적으로 돼지콜레라를 박멸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여주 지역과 이천 지역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태를 양돈공동방역사업단에서 조사한 결과 이천 지역에서는 5.8%(50두 미만 사육 양돈장), 여주 지역에서는 22.2%(100두 미만 사육 양돈장)의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50두 이하의 소규모 양돈장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 돼지콜레라에 대한 방역활동은 이러한 양돈장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5.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대책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근 돼지콜레라의 발생상황과 양돈장의 실상을 살펴본 바 돼지콜레라

의 박멸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양돈 생산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단체 및 방역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소규모 양돈장(특히 50두 규모 이하의 부업 양돈장)에 방역 행정력을 집중하고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 2) 모든 양돈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위의 양돈장에 대한 참여 유도 및 감시 감독
- 3) 양돈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 4) 현재로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방역 프로그램에 따라 100% 실시
- 5) 양돈공동방역사업단의 활성화 및 전임 수의사의 고용으로 지원활동 강화
- 6) 돼지콜레라의 발생시 조기신고 및 검진기

능 강화

7)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지원 강화

8)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서는 돼지의 이동 제한(특히 이유자돈의 이동은 매우 위험함. 이유자돈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기이며 불완전 면역으로 감염되기 쉽다).

9)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서 살처분 후 매몰하지만 주위에 돼지콜레라 강독 virus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주위 양돈장에서는 모든 돈군이 돼지콜레라에 대한 강력한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10) 지속적으로 돼지콜레라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해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축적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양돈**

특허출원 제33166호

DAJABER 연막/연무 살충기

FOGGING MACHINE IW-2000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박멸과

전염병 예방은 무소음
연막 살충 소독기로...

사용처

- ◆ 비닐하우스, 과수원, 닭시터, 저지대 하천
- ◆ 축산농가(우사, 돈사, 양계장, 개사육장 등)
- ◆ 아파트, 공장, 빌딩, 주택, 교회, 기도원, 사찰, 성당, 논, 밭
- ◆ 관공서, 식당,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 공공장소 등 사용처가 광범위하다.

영업딜러 모집

이원통상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05(재남빌딩 506호)
전화 : 861-3887(직통) FAX : 861-3866

우수한 성능으로 확실한 방역
적지만 사용면적이 넓다

○ 사용처: 연공사, 공공장소, 병원, 목장, 우사, 돈사, 양계장, 기타 축산 기성, 식당, 약정원, 저지대, 하천 등

